

문 대통령 “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성장률 4% 넘길 것 국내외 예측도 우리 경제 성장 가능성에 힘 실어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절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능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동학농민운동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교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하늘을 뚫은 합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11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혁명이 발생한 지 124년 만에 이어진 동학농민운동은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다. 이번 행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을 위한 명예회복식이 진행됐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에 기념 배치를 수여했다. 이날 공연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선보였고 백년도 지난 지금에야 재조명된 것에 대해 역사는 묻혀 지더라도 잊혀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참여자 3천686명을 찾아내고 유족 1만1천797명을 등록한 바 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조동학교만 졸업해도 다 알만한 사안을 구구절절 논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와 견주어 볼 때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 어필하는 것이다. 2019년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도현 전승일로 선정했다. 황도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전북 정읍시 황도현 일대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날부터 불이 붙은 동학군의 대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한 주요인물은 최재우, 최시형, 손병희, 박인호이고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며느리 민자영의 권력 다툼으로 순국한 5대 장군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장군이다. 동학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자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는 수고를 당부한다. 중요한 건 이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양반-상놈하며 계급사회의 잔재가 이어져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그때의 계급사회가 지금은 평등한 것이고 그때의 권력욕이 불려온 자국민들의 살육이 지금도 가치를 존중받는다. 124년이나 지난 다음 재조명 받는 걸 보면 요즘 사회분위에서 누가 목숨 걸고 애국정신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것이다. 먼저 평등한가, 물론 지금은 돈 있으면 양반이고 없으면 상놈이나 다름없으니 큰돈을 버는 방법이 기업이고 기업은 관으로부터 남품이나 공시를 받아야 먹고 사는 구조다 보니 결론은 정치의 판짜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판이다. 다시 말해 고기도 먹여본 놈이 먹는다고 이미 맛들인 자들이 길들여진 방법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양반-

상놈이란 명칭만 없을 뿐이지 은행잔고로 나눠진 계급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좋아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이고 서민층의 머리 숫자가 많다보니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이 걸만 번지르르한 서민대책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살림을 피폐하게 만들고 세금징수에 찜탄 과학을 동원하여 심야시간대에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기본이요 고속도로 통게이트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늦으면 가신급, 더 안 내면 동산·부동산 압류에 은행계좌 압류와 한 번씩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마위의 고기다. 납세 의무를 진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밖에 현행법의 잣대라는 게 이현령 비현령이다. 밤새 주차로 도로의 차선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무용지물이 되어도 관청은 가 하면 카메라를 장착한 주차장 단속차량이 동네 몇 바퀴 돌면 합법적인 과태료는 물론 여차 체납 차량이라도 걸리면 변호관은 인질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이 지속되는 울분을 뜻하는 만성적 울분 상태이며 그 원인의 1위가 부패한 정치라는 통제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성인 1478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58.2%는 만성적인 울분인데 작년보다 10.9% 높은 수치라 한다. 16가지 가운데 가장 울분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영역은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써 문재인 정부의 집권한 2018년 5월, 2020년 3월, 올해는 1위로 나타났다. 평등, 과거의 계급이 지금은 평등할까.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자율주행시대가 작금의 시대적 변화인데도 령자가 많은 택시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가 늘면서 죄 없는 노인들이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논란이 많았던 의사 면허 취소법 통과에 대한 의사 총파업 사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가 일지러 늘었다며 요란한 홍보를 하는 내용에는 90만개 중 59만개가 월 27만원 용돈 일자리고 그중 1만개는 시간당 2000원 짜리의 봉사 수준이라는 점은 과거의 피폐한 백성들이 현재도 존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음, 지금이라도 새로운 현대판 동학혁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감히 누가 나설 수 있으며 그들이 희생된 뒤 후손들이 지금처럼 재조명이라도 해줄까.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답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광복이후 77년 동안 격변의 시기가 지나고 친일청산의 실패와 서방국가로부터 잘못 유입된 종교, 문명, 언어, 사상, 교육, 평등, 성, 도덕 등 모든 분야가 우리 민족에게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륙하면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이 누구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으며 그 시스템을 권력과 돈으로 주무르는 자들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박영/김근석

65~69세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첫날 63.9만명 접수...전체 대상자 중 21%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1일 “65~69세 연령대 사전예약이 시작된 어제 하루 전체 대상자 298만 7000여 명의 21%에 해당하는 63만 9000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세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이는 지난 6일 70~74세 연령대의 사전예약 첫날에 있었던 11.5%의 2배에 가까운 예약률”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70~74세 사전예약이 26만 3000명을 기록하면서 일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에 따라 11일 0시 기준 총 예약자는 85만 4000명으로 전체 213만명 중 40.1%에 해당한다.

이에 이 단장은 “더욱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유드린다”면서 “자녀와 같이, 또 보호자가 대신 예약하실 경우 대리예약자 분의 본인인증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백신 공급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예정대로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000회분이 도입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000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과 관련해 “외국의 경우 확진자 대비 5% 정도 이상을 분석목표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주일간만 해도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약 15.9%의 유전자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지난 1주간 17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808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최근에 울산에 있었던 영국형 변이 유행과 경기도 부천시의 남아공형 변이는 현재 유행정점을 지나서 감소 추세”라면서 “다만, 산발적인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에 합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충분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했다. 아울러 인도 내 환자 급증과 국내 유입 증가 등에 따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단장은 “최근에 하루 평균 600~700명대의 발생 상황이 있었지만, 다시 400~500명대로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방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면서 “충분

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족 내에 어르신이나 기저 질환을 가진 분은 예방접종을 잘 확인하시고 또 접종 후에도 건강상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만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아태마스터스대회 총사업비 증액 건의

국가철도망·SOC,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23년 개최되는 아시안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23년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를 당초 20억원에서 75억원으로 55억원 증액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7월 2023 전북 아시안·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개최도시 계약 사항 이행 체결 전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고, 주최기관인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과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예산으로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 2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송 지사는 황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 건의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초, 최장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제공을 위해 '새만금 실감형 콘텐츠 Field TEST 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0억원 반영도 건의하였다.

한편, 송 지사는 지난 6일 청와대 방문에 이어, 이날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갔다.

송 지사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건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 요청한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



중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되는 5월 31일까지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김송일/기자

윤영덕 의원, 13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체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 개최

'광주·전남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지역대학과 시·도 교육청 및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대학 체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살리자 대학! 키우자 인재!'라는 한뜻으로 모인 이번 토론회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지역대학 혁신 방안 및 지역공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국회의원(광주동남갑)과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그리고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가 공동주관한다.

지역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광주전남 소재 대학 총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는 백기상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박경희 전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광주전남 지역고교-대학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조성준 전남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광주전남 대학 공동교육과정 현재와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광주광역시 대학발전협력담당장이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마친 후, 2부에서는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유신 주식회사 티디엘 대표, 박준용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자유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현재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며 "이



은 논의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학생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생의 시각에서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공교육의 어려움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대학을 혁신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고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하며, 전남대학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강민정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내일(Myjob)이 있는 마포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강북구 삼양사거리에 '주상복합' 들어선다

역산업 맞춤형 청년특화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생태계 조성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29층 주상복합 고밀 개발... 497세대 공급 가능 규모

마포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청년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해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는 지역 차원의 고졸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 생태계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구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기반 고졸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DMC 코넵과 함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지원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기반 고졸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 인력 양성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디지털 직무훈련·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취업상담·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졸 청년 구직자가 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DMC 코넵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지원사업'은 고졸 세대의 특성과 M&E 업종 현장의 특수성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실질 수요에 맞는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DMC 중소기업 구인난 및 고졸 청년 구직난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청년 디지털·그린 뉴딜 인턴 지원사업'을 한국능력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해당 사업에 참여할 12개의 기업을 선정할 바 있으며 선정 기업은 오는 5월 28일까지 참여인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마포구에서 4차 산업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기업은 나인투스, 매트릭스튜디오, 비브리지, 아자스쿨, 아트리즈, 왓섬, 위드마인드, 유엔솔루션, 이십사점오, 일리오, 피트메디, 해피투씨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인턴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 후 참여기업과 인턴 간 상호의사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한국능력협회 및 마포청년나무의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개발 및 미래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인턴 자격은 공고일(2021. 4. 28.)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마포구 거주 청년(서울시 거주 청년가능)이며, 각 기업이 제시한 자격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은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으로 채용되었던 자, 신청일 이전 참여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등이다.

각 기업별 참여인턴 모집현황 및 직무내용,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동근 마포구청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고졸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 및 추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서울 강북구가 지난 7일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9층 4개동, 연면적 8만6218㎡(건폐율 57.6%, 용적률 579.59%)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226세대, 60㎡ 이하 271세대 등 총 497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024년 11월까지다. 특히 구는 사업예정 구역이 가진 높은 보유수요를 감안해 기부채납 시설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했다. 건물물이 들어서면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된다.

대상지(미아동 705-1번지 외 78필지)는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일부 구간이 특별계획구역Ⅲ으로 지정됐다. 낡은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재검토되면서 신규 편입됐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삼양사거리역 근처에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주변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대규모 세대의 배후 주거지가 있다.

구는 '우이신설역세권 개발방안'으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는 판



교, 교육, 업무시설 등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포함됐다. 역세권에 예술인,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계획대로 고밀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 선정...국비 2억원 확보

호텔리어 꿈꾼다면... 송파구 온라인 채용설명회로!

용산구, 연말까지 외국인 생활정보지도 구축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200여 명 채용예정, 실시간 질의응답 기회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구는 '외국인 생활정보지도'를 새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가 내국인 것에 비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청년 인턴 18명을 활용, 외국인 방문객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인터넷(용산구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이를 영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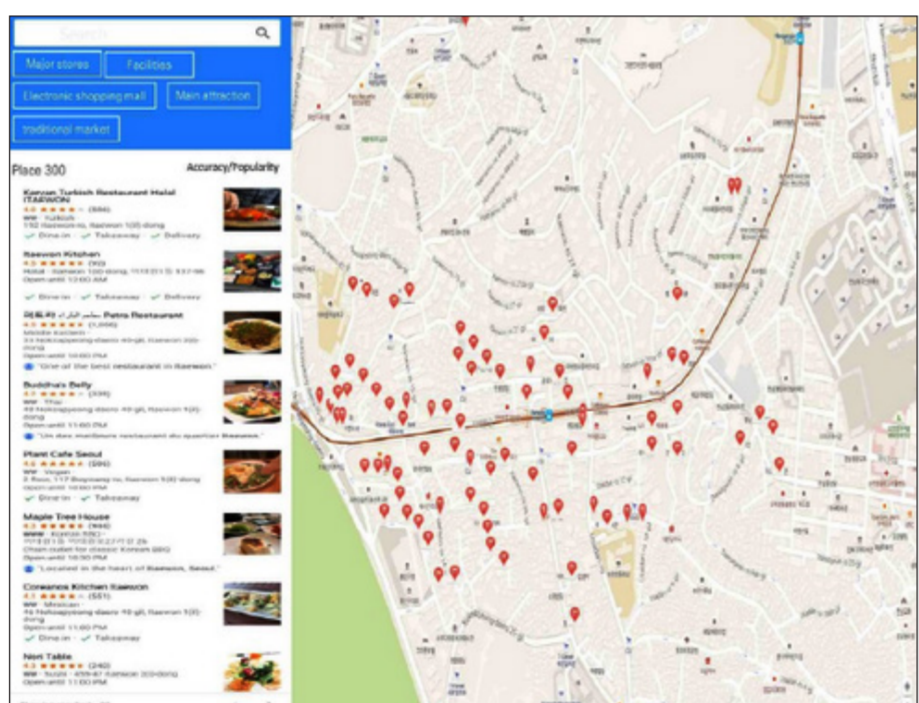
수집 데이터는 지역 내 ▲숙박(호텔, 유스호스텔 등) ▲주요 상점 ▲명소(박물관, 사원, 기념관, 공원, 문화재 등) ▲전차상가 ▲전통시장 ▲기타 생활편의시설(경찰관, 대사관, 출입국관리소 등) 등에 관한 정보다.

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모범음식점 등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간다.

360도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 가상현실(VR)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후 주요 상점에 대한 파노라마 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사업 연계부서, 서비스 개발 그룹, 일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DB)를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오픈 에피아이(Open API)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Open API는 특정한 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에 의해 공개하는 기술을 말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전용 배달앱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유관 기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구는 지난 3월 행안부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 사업 기간은 6월~12월이다.

청년 인턴은 행안부에서 선발, 업체로 배정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연말까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 표준·현행화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더하고 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최만식/기자

송파구는 오는 5월 21일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개관 전 대규모 공채와 연계하여 「2021년 상반기 송파구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설명회는 '호텔리어'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KT송파지사 부지에 컨립중인 프랑스 최고급 호텔 브랜드 아코르 그룹의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의 개관 및 대규모 채용 일정에 맞추어 진행한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은 ▲객실부, ▲레비뉴&객실예약, ▲식음료부, ▲조리부, ▲관광부 등 총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소피텔 인사담당자가 기업 소개 및 채용일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신청자들의 사전 질문 및 현장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의 설명회를 기획했다.

'호텔리어'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성공을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설명회는 오는 5월 21일 15시부터 60분간 송파구 유튜브 송파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또한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150명에게 사전 신청을 통해 채용전형, 취업 성공전략에 대한 질의응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5월 20일까지 링크



속 후(bit.ly/소피텔서울 채용설명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호텔리어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취업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관

정동희/기자

"정책실명제 신청하세요"...영등포구, 구민신청실명제 상시 접수

영등포구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실명제의 신청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구민 참여를 강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선보인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2013년 제도를 첫 시행한 이후, 총 185건의 사업을 공개·관리하며 투명

한 규정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사업의 선정 시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 참여 창구로, 그간 한정된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오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구 홈페이지 내 '구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정과 정책실명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공개를 요청하는 정책명, 사유 등을 작성해,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된 사업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구민이 신청한 사업 및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원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신청실명제의 개선을 통해 정책추진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원일/기자



국내 최초 반려동물 친화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식 열린다

청년주거빈곤과 동물학대를 물리친다는 뜻의 '백신이 필요해!' 퍼포먼스도

서대문구가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견우일가'(중가로24나길 24-14, 북가좌동) 입주식을 이달 15일 오후 3시 현장에서 개최한다.

'견우일가'는 '1인 청년가구가 반려견을 매개로 한 가족처럼 사는 집'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 공급한 다섯 번째 청년주택이다.

앞서 구는 일반 청년임대주택으로 2016년 북가좌동 '이와일가', 2018년 남가좌동 '청년누리', 2019년 흥은동 '청년미래공동체주택', 2020년 흥은동 '우리가'를 선보였다.

입주식은 '청년도 동물도 행복한 서대문구!'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주택건립 과정과 입주자 인터뷰를 담은 영상 상영, 입주 소감 발표,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 주거빈곤과 실업, 동물학대와 유기를 바이러스로 비유하고, 이를 백신주사로 물리친다는 의미의 '백신이 필요해!' 퍼포먼스도 펼친다.

입주식에는 '견우일가' 입주자 외에도 '이와일가' 입주자, 반려견 주택 전문가, 서대문구와 SH공사 관계자 등

이 참석한다.

'견우일가'는 SH공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지면적 238㎡에 지상 5층, 연면적 475.69㎡ 규모며 각 세대는 전용면적 30㎡의 원룸형 구조로 돼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만 19세에서 37세 이하 청년 12명이 거주할 수 있는데 특히 건물 곳곳에 반려견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돼 있다.

1층 주차 공간에는 리드훅(목줄)을 걸 수 있는 고리(리드훅 Lead Hook)를 달았다.

역시 1층에 입주자들이 반려견을 돌보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21.12㎡)을 마련했다.

이곳 입구에는 반려견을 산책시킨 후 씻길 수 있는 세척시설이, 내부에는 애견욕조와 반려견 배변처리기가 설치됐다.

2층부터 5층까지 각 가구에는 소리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소리를 내는 초인종 대신 빛을 깜빡거리는 '초인등'을 달았다.

실내에는 반려견을 위해 갑박음이 없는 플리커 프리(Flicker Free) 조명



을 설치했으며 화장실 출입문 하단에는 반려견이 드나들 수 있는 펫도어(Pet Door)를 만들었다.

4층과 옥상에는 입주자와 반려견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30~50%로, 평균 보증금 1,742만 원에 월세 22만 원이다.

무주택과 소득기준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만 39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부평구, '보육교사(재취업)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20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장 맞춤형

보육교사(재취업) 양성 과정 무료 교육생 모집

교육안내 교육기간 2021.6.3.~7.30. (월~금) 교육시간 10:00~13:00 (1일 3시간) 교육인원 20명 교육장소 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구청역) 교육비 무료 교육특성 수료 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동행구연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교재 제공비 무료	모집안내 모집기간 5.28. (금)까지 모집대상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인천시 거주자, 55세미만 비정규직등 여성으로 취업여부가 분명함	신청방법 방문접수(인천여성가족재단) 또는 온라인접수(인포) 신청증, 보육교사자격증 지참	제출서류 주민등록사본 1부, 개인영보 1부, 동등사본 1부, 자기소개서 1부, 동등사본 1부
---	---	---	---

문의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7-9833/5
*연락처: 부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링크 <https://www.bupyeong.go.kr>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구가 오는 28일까지 '보육교사(재취업)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시즌2'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인천시 거주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현장이해,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보육계획 및 일자작성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은 모집기간을 기준으로 인천시 거주자 중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55세 미만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방문접수(인천여성가족재단 별관 광역새일센터)를 통해 지원자접수를 받고, 면접을 거쳐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부평구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에 대응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부평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시즌2'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인천 서북부 실현'을 위해 고용 내트워킹을 구축, 여성고용 촉진 및 인력수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성 친화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의 자립역량과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변재현/기자

인천시, 농협은행과 손잡고 인천e음 현장발급 '너나e음 서비스' 실시

인천시에 소재한 전 농협은행 지점에서 인천e음 신규발급, 잔액충전, 충전취소가 가능한 '너나e음 서비스(너나e음)'가 도입된다.

인천광역시 10일 시청에서 농협은행·코나아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너나e음 서비스·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너나e음 서비스'가 관내 전 농협은행 지점에서 개시됐다.

'너나e음'은 인천e음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없이도 인천e음을 발급 및 충전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다.

스마트폰 미사용자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 등 그동안 인천e음 사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자에게도 관련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희망자는 관내 모든 농협지점에서 인천e음 신규발급, 잔액충전, 충전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충전취소는 당일 충전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너나e음'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인천e음은 모바일 앱과 달리 신청 시, 등 록한 휴대전화로 매 결제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 충전잔액, 캐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에 자동으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휴대전화만 있다면 누구나 인천e음 발급은 물론, 캐시백(최대 10%), 혜택플러스 가맹점 추가할인(1~7%)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천e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와 사업상의 이유로 법인휴대전화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사용이 제

한돼 왔다.

아울러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사용 하더라도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농협은행을 활용한 인천e음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령, 스마트폰 유무, 본인명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인천e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년도 1분기 기준, 인천시 노인인구는 41만 7천명, 인천e음 노인인구 사용자는 9만 9천명으로서, 너나e음이 시행될 경우 최대 31만 8천명의 노인인구가 인천e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미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등 인천e음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까지 포함하면 너나e음은 인천e음 가입자 및 발행량을 대폭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e음은 최근 가입자 147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발행액이 5조를 뛰어 넘는 등 인천을 넘어 전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사랑전자상품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너나e음을 통해 그 대상은 인천e음 사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으로 확대해 인천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이 인천e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속, 질박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부양하고자,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및 공공배달서비스 등 사용자의 니즈(Needs)에 맞는 부가서비스를 적극 구현하고 있다.

이번 너나e음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인천e음 가입자 및 발행

인천e음 현장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한

너나e음 서비스 오픈!

지금 바로 확인하기 >

량을 확대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같은 인천시민 입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도 포함, '우리 인천, 우리 모두의 인천e음'을 실현해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e음이 인천시민의 생활 속 필수품이자 대한민국 대표 전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며 "너나e음 현장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인천e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너도 나도 있다"라는 '너나e음'의 의미에 맞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인천시교육청, 따뜻한 학교 만드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주간 운영

살기 좋은 따뜻한 우리인천교육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주간 운영 (2021.5.10.~5.15.)

상호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나, 너, 우리! 따뜻한 학교 만들기

서로의 소중함,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주간'은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챙기고 서로 함께하며 '나, 너, 우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상반기에는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둘째 주에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연 2회 자율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주간'에는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 온라인으로 칭찬 릴레이와 감사 편지 쓰기 △ 응원과 격려 메시지 전달하기 △ 사제동행 등굣길 음악회 등 따뜻한 우리 학교 문화 만들기 △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학생자치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화합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직원들이 배려하고 상호존중을 실천하여 행복한 교육문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써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

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개발·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에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

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보증금의 출자·유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



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적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

최광용기자

광명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자 6명 과태료 부과 및 시청직원 징계조치 예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6명 식사모임 가져

광명시는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청 직원 등 6명에게 개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시청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이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하여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은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정차 기준 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하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아산시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및 이동형 CCTV 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5월 10일부터 인도와 안전지대가 포함됩니다.

-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1일 1회 10건에 한함
- ▶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앱으로 촬영
- ▶ 2019. 4. 17.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 금지

-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
-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한가지 표지 구역
- ▶ 소화전 주변 5m
- ▶ 교차로 모퉁이 5m
- ▶ 버스 정류소 10m
- ▶ 횡단보도
- ▶ 안전지대 (5월 10일부터 시행)
- ▶ 인도 (5월 10일부터 시행)

아산시

중구, 국보1호 승례문 앞 쓰레기 적환장 대대적 환경개선

중구는 남대문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 관련 폐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관광객과 상인들을 위한 녹지 화단과 쉼터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대문 시장 지하 쓰레기 적환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하에 보관했다가 쓰레기 수거 업체가 거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9년 도로에 있던 쓰레기 적환장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하화했으나, 설비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용을 중단하고 지난 1월 철거에 들어갔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 운영 중단 이후, 지금은 하루 평균 일반 쓰레기 4t, 음식물 쓰레기 3t, 재활용품 2t 등 총 9t 규모의 쓰레기를 위탁업체에서 직접 시장에서 수거해 소각장으로 가져가고 있다.

쓰레기 적환장이 있었던 곳은 국보 1호 승례문 앞 남대문시장 주 출입구로 적환장 폐쇄 이후 인근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등 생활 폐기물이 적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 발생으로 인해 관광객 및 주변 상인들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랜 검토 끝에 남대문 시장 조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화단과 휴게 의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448㎡ 지하



공간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용범위를 확정 짓게 된다.

쓰레기 수거방식도 거점수거에서 대면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소 대행업체에서 상가를 순회하며 쓰레기를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도에 불법 주·정차해 조업하는 대형·중형 택배 차량은 바로 옆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이전토록 하고,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24시간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또

강성원기자

성남시 전국 첫 '학교돌봄터' 판교대장초교에 설치·운영

市-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초등학교 협약

성남시는 오는 6월 1일 개교하는 분당구 대장동 판교대장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시설인 '학교돌봄터 1호'를 설치·운영한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자체 설치·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달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자 성남시가 지자체로는 첫 운영을 맡는 초등학교 돌봄 지원시설이다.

시는 5월 11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범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영선 판교대장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시와 학교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설 리모델링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판교대장초등학교는 3층짜리 체육관 건물 1층에 있는 358㎡ 규모

의 돌봄터 공간을 성남시에 5년간 무상 임대한다.

시는 이곳을 초등학교 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돌봄터로 리모델링한다.

어린이 식당, 동적·정적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민간 위탁자 모집 절차를 거쳐 센터장과 돌봄종사자(2명), 조리사 등 4명을 운영인력으로 둔다.

방과 후(오후 1~8시)와 방학 중(오전 9시~오후 8시) 이용 학생에 급식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후에는 보건복지부(25%), 교육청(25%), 성남시(50%)가 부담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의 돌봄 수요를 선제 대처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 늘려 설치한다.

시는 2019년 3월 은행1동 복지회관 2~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를

설치한 이후 지속 늘려 현재 13곳에 설치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북정동·여수동·금광동 등 9곳에, 내년엔 10곳에 추가 설치해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두 32곳으로 늘게 된다.

이성용/기자

오산교육재단, '청출어람 멘토링' 프로젝트

전문 직업인 멘토를 통한 진로 심층탐색 프로젝트



(재)오산교육재단은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청출어람 멘토링'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기반을 다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출어람 멘토링' 프로젝트를 위해 (재)오산교육재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멘토로 위촉했다.

중고등부 멘토는 어반베이스(주)의 가상현실 전문가 윤인하, 온지음의 박성배 수석연구원, ㈜AI THE 뉴트리진의 인공지능 전문가 이동훈, 한국뷰티예술실용전문학교의 서인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준채 프로파일러 등 총 5명이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나보기 힘든 직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산시 청소년의 진로 로드맵 구상을 위한 특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초등학생 대상 멘토 분야는 반려동물행동상담사, 화장품 연구원, 성우, 게임크리에이터, 웹툰작가, 파티셰 등으로 교육부 커리어넷에서 '원격영상진로멘토링'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팀과 연계하여 막대한 진로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오산교육재단의 '청출어람 멘토링'은 온·오프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사전활동과 전문가 멘토와의 상담, 사후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멘티 학생들은 전문가로부터 흥미진진한 직업이야기, 필요한 흥미와 적성,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어려움 점 등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해당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해 초·중·고 시기에 함양할 수 있는 인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뷰티 분야의 경우 현장학습까지도 마련했다.

'청출어람 멘토링' 프로젝트는 오산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이다. 오산시 관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밀도있는 멘토링을 위해 1회 강의에 3명이 학생만 참여 가능하다.

중고등부 대상으로 운영되는 뷰티 분야는 5월 15일과 29일, 요식업과 프로파일러 분야는 6월 12일과 26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는 7월 24일과 31일이며, 초등부 대상 파티셰 멘토링은 7월 24일, 웹툰 작가와 반려동물행동상담사 멘토링은 8월 14일, 게임크리에이터와 화장품 연구원은 8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오산교육재단 조기봉 상임이사는 "오산시는 관내 모든 학생들이 진로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청출어람 멘토링은 시·공간을 초월한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며 "직업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멘토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양주시,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1차 심의 통과... 2차 심사 '만반의 준비'

양주시는 지난 4일 발표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에 통과한 2개 기관의 최종 유치를 위한 2차 심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1차 심사는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사의위원회에서 시군별 이전부지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3차 이전 공모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북지재단 3개 기관을 지원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연구원, 경기북지재단 2개 기관의 1차 심사에 통과했다.

이어 진행되는 2차 심사는 오는 26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여론조사와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사업적합성, 도정협력 등을 기준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특히 ARS 전자 설문조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민 인지도, 유치 적극성 등을 평가해 공공기

관 유치 최종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모 일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T/F)'을 구성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유치 주력기관으로 결정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북지재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옥정회전선도시발전연대 유치 기원 결의대회 등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감동이와 함께하는 경기북부 청사 걸기' 캠페인,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기원 랜선 음악회 등을 실시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 내 유치 여론 형성과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집중했다.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



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2차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

정동희/기자

부천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본선 진출! 특조금 최소 30억 확보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 제안사업 선정

부천시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일반규모 사업 본선에 진출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가 공약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군의 차별화된 사업을 대규모 사업(공사비 100억 이상)과 일반규모 사업(공사비 60억 이상)으로 구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 사업이다.

일반규모 사업에는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응모해 지난 4월 30일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7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5월 말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60억 원, 최우수 2건 각 50억 원, 우수 2건 각 40억 원, 장려 2건 각 30억 원의 시상금(특별조정교부금)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대기오염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일반규모 사업 분야에 응모했다.

시는 응모한 사업은 ▲스마트 실내환기 서비스(코로나19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시간 입체 미세먼지 측정망 이용시설 확대 ▲대중이용시설 실내 환기 개선 ▲스마트 대기정보 플



랫폼(서비스 간 연계, 데이터 통합의 도시단위 대기정보 분석)을 구축하며, 총 사업비 약 8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 사업은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이룬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사업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부천시 전역에 대기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와 경제를 회복하고 신산업 일

자리 창출과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규제강화,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일회성 대기 관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 대기관리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의 본 심사는 6월 1일 열릴 예정이며, 5월 13일부터 7일 간 정책공모 사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진행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의정부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ICT(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고품화 등 지역현안 해결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며, 전국 30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의정부시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고품화 및 소득감소에 따른 주택관리 미흡, 기반시설 공급 정체로 인한 주거 생활공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흥선로 16번길 6-9) 일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력 도모, 어르신 등 취약계층 문화복지 스마트거점 마련, 디지털 보행 안전환경 등 큰 틀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 '스마트 베이스 캠프 흥선'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 내 방치 지하공간을 활용해 특화작물(버섯) 재배를 지원하는 스마트 팜 시스템과 청년 협동조합 활동 공간에 비대면 창작기획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거점 공간인 흥선노인복지관 내에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족한 녹색 정주공간 확충을 위해 식물 식생환경과 공공 WiFi

흥선 스마트 이코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온도·환기·습도, 출입관리 센싱 및 조절장치 작물정보 및 제어정보 전달 등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스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워크 스테이션,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션 다목적 화상회의 시스템
스마트 IoT 그린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IoT 그린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정화, 실내 공기질 IoT 장치 결합 에코트리 인공지능 기반 위험요소 식별 및 스마트 IoT 원격방역 스마트 그린 큐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 및 온도관리, Wi-Fi, 외부 정보 연계 자동 식생관리
스마트 IoT 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IoT 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깨우미: 스마트폰을 이용 보행자 주의 경고 보행자 감지 알림 및 서행유도 무선호 교차점 IoT센서 및 LED 사인보드 활용 시각화 디지털 스마트 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통학로, 우범지 보행로 공공 Wi-Fi, 스마트 가로등, CCTV, 미디어보드 등

등 디지털 휴게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큐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주요 진출임로에 스마트 IoT 교차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조명 등 시설환경이 낙후되어 범죄 노출 등 위험요소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는 취약보행로에 다목적 스마트 플을 설치하여 공공 WiFi, 지역 활동 미디어 정보 및 센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안전 보행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예정사업비 11억 원 중 국비 5.5억 원

내외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 실시계획을 시행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기술 융합형 스마트타운 서비스 적용을 통해 고품화 및 지역소멸 등 도시성장 저해요소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지역경쟁력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노력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기도민 89%,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잘못된 결정”

도, 도민 1천명 대상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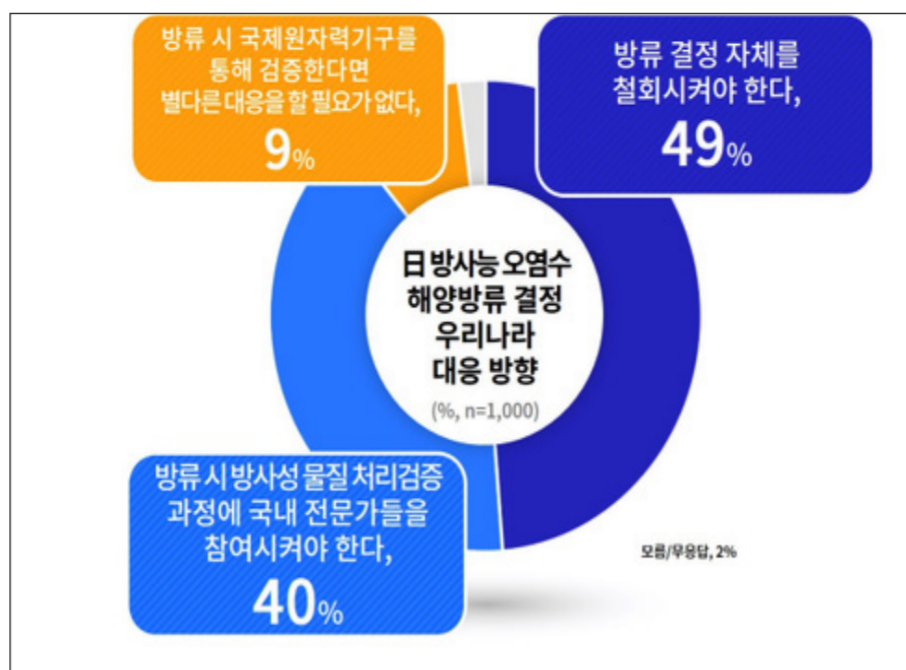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들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 방류 시 문제점에 대해 ‘해양환경 오염(96%)’, ‘식품안전(96%)’, ‘개인건강(94%)’ 등 선택지 모두 94% 이상 우려를 표했다.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들의 수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82%가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지금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수산물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 주문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경기보다 방문·관광 횟수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방류 결정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49%)’, ‘방류 시 방사성 물질 처리 검증 과정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40%)’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그룹(55%)이 모르는 그룹(34%)보다 ‘방류 결정 철회’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23%)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16%)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15%)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가 지난달 23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바닷물·수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86%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결정에 대해 전 국민, 중앙정부·지방

정부가 한팀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철회시켜야 마땅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8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최근수기자

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수원시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휴게시설 8개소의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수원시 소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청소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공동주택과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 우편·방문(장안구 덕영대로 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팩스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점검 후 ‘동행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공동주택·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배점은 ‘개선 필요성’ 70점, ‘개선 후 효과’ 20점, ‘고용안정·취우개선 노력’ 10점이다.

신청 공동주택·중소기업과 체결하는 동행협약 내용은 ▲고용안정·취우개선 ▲노동인권존중 ▲휴게시간

존중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이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를 자부담해야 한다. 견적 산출·개선 공사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재능기부지원단에서 추진한다. 견적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로만 산출한다.

휴게시설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도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공동주택·중소기업 휴게시설 개선 공사에 총 3963만 원을 지원한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1463만 원이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총 29개소의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선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고양시, 제2기 청춘나래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진행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제2기 청춘나래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및 교육을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청춘나래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2030 청년 모임이다. 서포터즈 활동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며, 월별 우수활동자 등에게 시상하는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청춘나래 서포터즈 2기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32명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들은 ‘청춘나래 서포터즈 표현하기’ 사전미션을 시작으로, 마음건강과 관련된 교육(정신건강, 마음챙김 등)을 듣고 마음건강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 게시하기,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SNS 업로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정석 센터장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의 서포터즈 운영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춘나래 서포터즈 2기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죽전역 에일린의 뜰

경북도, 저출산해법... 미래세대 인구교육에서 찾다

2021년 9개 대학 833명, 2020년 18개 대학 5,551명 사이버 강좌 수강

경상북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극복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 경북도와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이 체결한 '대학생이 함께하는 희망찬 경북 만들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경북도가 2011년 7월 전국 최초로 '행복한 삶과 가족'이라는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영남대학교 e-러닝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사이버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영남대, 포항대, 안동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9개 대학 833명의 인원이 강좌를 수강중이며, 2학기에는 대구·경북권역 대학의 수요조사를 거쳐 약 1,000여명에게 교육을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변화된 인구

현상 및 인구정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6개 대학교 전문연구원 및 교수 14명이 참여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와 추이 ▷결혼과 가정의 의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해 ▷국가별 저출산 대응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재구성한 교재 및 콘텐츠를 강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1년 대구·경북권역 5개 대학, 580명 수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19개 대학, 28,073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했다. 또한 2020년 강의를 수강한 6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5%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을 묻는 질문에 '결혼할 생각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수강 전 366명에서 수강 후 396명으로 증가하였고, 출산의향을 묻는 질문에 '출산할 생각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수강 전 323명에서 수강 후 340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



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미래세대,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출산 등의 주제가 될 세

대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참여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공성농업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7일 오전 11시, 공성농업협동조합과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미소진미'로 등록된 신품종을 새로운 최고 품질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올해 20ha를 시범적으로 재배·생산하고 내년 50ha 면적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공성농협, 쌀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벼 생산단계부터 수확·유통 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

로 품질 규격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관리 기술 적용을 위해 자동식 물꼬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우수 질감과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손상수 공성농협조합장은 "생산자 단체와 새로운 품종생산·유통을 통해 브랜드 선점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일품 벼 대체 품종 발굴·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올해 보급되는 '미소진미'가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월 5만원 수당 받아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범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왔고, 최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 중이면 된다.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시

행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고쳐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신청기간을 놓쳤던 유가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연장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주낙영 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서 안된



다"라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식기자

대구시, 산·학 협력으로 탄소중립 도시 선도한다!

전국 최초 산·학 주도 '대학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사업' 추진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경북대학교에서 올해 4월 23일 제1차 전국 최초 '대학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와 경북대,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5월 10일 오후 2시에 경북대에서 체결한다.

본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공간의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사회·경제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전국 대학교, 산업단지 및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공조하고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경북대는 탄소중립 R&D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 산업화를 지원한다.

현대일렉트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대구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협력하며, 태영건설은 Zero-에너지 빌딩 구축을 통해 지역의 건축분야 기술지원과 고용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는 2040년 모든 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학교 내에서는 친환경자동차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건물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6,363톤을 감축해 204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탄소배출권과 DR, PPA 등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인 탄소중립 시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21개국에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해 7월에는 대구시 주도로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현재 17개 광역자치체와 63개 기초자치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도 10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대구시는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에 앞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인 'Race To Zero'에 전국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대와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이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며, "대구 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울진군, 워크온앱과 함께하는 해안 따라 발길 따라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 진행'

울진군은 경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25일까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 중이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플랫폼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한 걷기행사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한 후, '경상북도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행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울진군'을 그룹으로 지정하면 된다.

휴대폰을 소지하여 원하는 시간대 편한 장소에서 참여 가능하며, 규칙적인 걷기 습관을 위해 1일 인정되는 걸음수를 1만보로 제한한다.

기간 내 10만보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북광역치매센터에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울진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 내 6만보 달성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수현 보건소장은 "앱을 통한 걷기행사 진행으로 청·장년층의 참여가 기대되며,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교통량 분산으로 시원하게~ 더욱 가까워진~ 대구·경북 '동구 안심 ~ 경산 임당간 광역도로' 추진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동구 안심 ~ 경산 임당간 광역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 시설을 통해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동구청에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온 동구 안심 ~ 경산 임당

간 광역도로 사업은 대구시에서 급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건의한 5개 광역도로 중 유일하게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대구·경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생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반영된 동구 안심 ~ 경산 임당간 광역도로 사업은 연장 3.1km, 사업비가 806억 원으로 동구 안심지역

과 2025년 완공예정인 경산 대입 택지 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여 대구 동부지역과 경산 서부지역 간 교통망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및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

기 중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동구 안심 ~ 경산 임당간 광역도로 사업을 통해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국도4호선, 경안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구·경북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 행사 개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



건강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운동
부산교육청이 앞장섭니다!
2021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신체활동 동기 부여
○ 부산광역시 차원의 범시민 환경보호 활동(제로부산 캠페인)과 연계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

줍깅' 챌린지 개요
○ 챌린지명: 2021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
○ 기간 및 장소: 2021. 5. 10(월) - 11. 30(화), 쓰레기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 대상: 부산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 주 회: (사)생명그림(부산광역시 후원 환경단체)
○ 주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 운동효과
- 조깅(걷기 등적)을 통한 유산소 운동(알로리 소머, 기초대사량 증가, 심폐지구력 강화)
- 줍기 등적(스쿼트, 런지)을 통한 하체근력 강화, 코어 근육인대 강화, 유연성 향상
- 쓰레기 분기수거시 쓰레기 자체 무게로 인한 팔 근력 강화

줍깅' 챌린지 참가 방법
○ 부산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ome.pen.go.kr/bssc/main.do>) 접속
○ '줍깅' 플랫폼 공식서명 확인
○ '제로부산' 홈페이지(<https://www.zerobusan.com/main/>) 접속 및 회원가입
○ '줍깅' 챌린지 지구를 구매하여 → 줍깅챌린지 참여하기 → 줍깅 활동내용 업로드 → 참가자 누적 포인트 적립 → 우수참가자 기념품 증정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2021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줍깅'은 스웨덴어의 줍다(plucka)와 영어의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으로써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 행사는 일회성,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환경단체 (사)생명그림이 운영하는 쓰레기'제로부산' 캠페인과 부산시교육청의 '2021 부산학생 온택트 스포츠클럽대회'를 연계해 부산지역 모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환경보호 실천 운동으로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봉투와 집계를 양손에 들고 가벼운 조깅 및 걷기를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의식적으로 다리를 구부리는 정확한 런지 및 스쿼트 동작을 유지하며 상체를 숙여 쓰레기를 줍는다.

이때 자연스럽게 하체 및 코어 근력이 강화되면서 신체 유연성이 향상된다. 충분히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

자체의 무게로 인해 팔 근력도 강화된다.

일반적인 조깅이나 걷기보다 체력 소모가 많아 체력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줍깅' 활동사진(쓰레기 치우기 전·후 사진, 만보기 및 핸드폰 런닝앱 등 캡처 사진)을 '줍깅챌린지 참여하기' 플랫폼에 업로드 하면 활동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챌린지 기간동안 누적 활동 포인트가 많은 참가자는 (사)생명그림 환경단체에서 제공되는 친환경 기념품과 부산시교육청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참가자들에게 모은 쓰레기들을 가까운 분리수거장이나 집으로 가져가 꼼꼼히 분리수거해 버리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환경단체와 연계해 '오프라인 줍깅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증진시키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통영시, 꽃(flower)피는(coffee)우리(We)

통영시는 정신재활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취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5월 첫째 주부터 '꽃(flower)피는(coffee)우리(we)' 정신질환당사자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꽃(flower)피는(coffee)우리(we)' 정신질환당사자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중 우울증으로 인하여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수요일 10:00~12:00 '플라워 테라피' 원예동아리와 매주 금요일 13:00~15:00 '커피향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커피동아리를 주 1회 10주간 운영한다.

이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꽃(flower)피는(coffee)우리(we)'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이 정신질환 당사자



가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영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적 훈련 등 자연스러운 대인관계 형성과 유대감 향상으로 우울증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취임 한달' 오태완 의령군수, 살기 좋은 행복한 의령 만들기 차근차근 준비 중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오 군수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군정목표를 '군민 우선, 화합 의령'으로 정하고, 5대 군정방향을 확정하여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광폭적인 행보를 진행중이다.

지난 4월 7일 재선거에서 의령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오 군수는 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군정을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다.

오 군수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의령전통시장과 신반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업무를 민생 현장에서 시작하면서 선거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첫 간부 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 보고회로 개최하고 방역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1년여의 군수 공백기간 동안 부진한 업무의 정상추진과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을 신속히 파악했으며, 군정발전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6개

분야의 핵심전략과, 17개 항목의 실천전략, 44건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 6개 분야는 ▲의령 미래 50년 중장기 정책과제 마련 ▲의령소득 3만불 시대 창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의령, 슬로시티 건설 ▲품격 있는 명품 관광 문화도시 건설 ▲농촌이 잘사는 '농촌부흥프로젝트' 추진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의령 건설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 중 일부는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기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의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올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의령 출신 한글학자인 고루 이극로, 남재 이우식, 한희 안호상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립국어사전 박물관 조성사업'이 경남도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토요예유통 경영 안정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스마트영농현장 방문 등 현장행정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부림일반산업단지 계획 승



인과 진입도로 사업비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 체결 ▲인구감소 대응공모 '영어 에듀테크 캠프조성' 공모 최종 선정 ▲로양이 컴퓨터에 둘러싼 도개비공원 사업 추진 ▲의령 랜드마크인 구름다리 새단장 ▲의령군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개장 등 가시적 성과 속에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천여점을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미술관'을 의령군에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도내에서 가장 먼저 밝히고 공약사업인 '호암문화대전'과 더

불어 의령군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취임 한달, 앞으로 의령미래 50년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여 의령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의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민의 행복한 일꾼으로서 의령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소통과 화합의 변화된 군정으로 의령을 경남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울산 국제철새도시 인증받았다"

태화강, 외항강, 회야호 등 '국제철새이동경로(FNS)' 등재

동해안 최초, 대도시 도심 내 하천으로는 처음 울산 태화강 철새 서식지가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NS-Flyway network site.)'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환경부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Network Sites)이 태화강, 외항강, 회야호, 선암호, 울산만 등 총 57.59km² 구역을 에프엔에스(FNS)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철새 전문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철새 부양 능력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번째 등재이다. 기존 16개 경로는 서해안 갯벌을 찾는 철새 위주였던 것에 비해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습지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심 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더그 와킨슨(Doug Watkins) 사무총장은 "공해를 극복해 낸 이후 철새를 보호하려는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등재 이후 철새 부양능력이 더 향상되고 안전한 사이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작용해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등재신청을 내고 실패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

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상호대수 백로 개체수 조사, 제8회 아시아 버드페어, 철새서식지 관리자 워크숍,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성지를 외항강, 회야호 등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10월 15일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같은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총장 일행이 울산을 방문하여 산업시설과 철새서식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울산의 철새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신청서 보완작업과 철새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제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

철새이동경로 등재 기준은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을 준용한다. 매년 물새 2만 마리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양하거나 전 세계 물새 개체 중 1% 이상을 부양하여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상당수 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태화강 철새서식지는 최근 3년간 평균 4만 마리 이상의 철새(2018년 5만 3,286마리, 2019년 4만 8,605마리, 2020년 2만 3,530마리)가 찾고 있으며, 흰죽지, 흰줄박이오리, 갈매기, 흰비오리, 민물가마우지 등 5종의 철새가 전 세계 개체수의 1%를 초과하고 있다.

또, 타 사이트에 비해 멸종위기종



의 개체 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종의 수는 다양하다. 황새, 노랑부리백로, 흰죽지, 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과 흑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찾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등재는 울산시민 모두가 노력한 따의 결과이다. 산업과 인구밀집으로 인한 오염을 극복하면서 다시 철새가 찾아오고 그 새를 보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세계가 인정해 줬다. 이제는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 산업수도에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국내 월영평야, 한강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낙동강하구, 인천 송도갯벌 등 16개소가, 해외 19개국, 149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149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라이하르트강고어 베르나딩가 해안이다. 울산이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미국의 알래스카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이다. 210개 이상의 개체군에 해당하는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의 보급자리다.

김기현기자

진주시, 임대료 인하 '상생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

월 18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었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되었다.

또한, 진주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



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

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생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광양시, 15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광양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인 상수도 인프라 개선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돗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어댐으로부터 원수를 받아 각각 정수처리 후 마동정수장은 중마동·옥곡면 등 동부지역에, 용강정수장은 광양읍·봉강면·옥룡면 등 서부지역에 공급한다.



광양시 상수도사업은 1986년 1월 급수량 1,825㎥로 급수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정수장 시설용량은 75,100㎥(마동 50,000㎥, 용강 25,100㎥)로 135,987명(보급률 97%)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450억 원이다.

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수도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 저감 및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73.2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관 세척, 수질 측정장치, 스마트미터링 등을 설치함으로써 수돗물 공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5년 5월 환경부에서는 흔히 백관이라고 말하는 '아연도강관(KSD-3537)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최종 규정했지만, 그 이전에는 건물 내부 수도용 배관으로 널리 사용된 재료였다.

수돗물의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탁도, pH,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으나 시는 복잡한 수질검사 결과 제출 없이 아연도 강관을 옥내 배관의 사용은 주택을 포함한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최초'로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과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의 옥

내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상세근거를 마련해 2019년 237세대(2억 3천 만 원), 2020년 1,461세대(5억 3천 만 원)에 대해 옥내 급수시설 개량을 추진했다.

올해는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내 배관을 개량하는 방법에는 교체, 갱생, 세척 등으로 지난 1~2월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세척 578세대, 교체 2,045세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상반기 중 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된 옥내 급수시설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수돗물 유출 발생을 계기로 수도 시설 위생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통해 정수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광양시는 침전지·여과지 등 정수처리 공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깔따구 등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충 유입 예방을 위한 여과지동 개선, 정수시설(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 청소, 방충망 보강, 역세척 주기 단축, 소독 강화 등을 실시한다.

수질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질 자동측정기 교체 및 용강정수장·덕례배수지 전동밸브도 교체한다.

겨울철에는 수어댐 원수에 망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망간 유입 억제제를 위해 원수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수질 데이터 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입되는 망간 농도에 맞춰 정

수처리를 정밀하게 제어해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동정수장 수돗물 소독 공정을 기존 액화 염소(고압가스)에서 취급이 쉽고 안전한 차염소독설비로 교체한다.

2020년부터 운영한 용강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 운전 결과, 소독능력이 기존 염소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광양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어댐에서 공급받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각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까지 과별별 수질검사를 매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검사, 분기 검사로 나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200개소를 직접 방문해 탁도 등 5항목에 대해 무료로 검사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부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0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2차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업 등으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3개월간 추진했다.

이번 감면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난 2~4월 3개월간 부과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50%를 일괄 적용했다.

감면된 총금액은 3개월간 약 4억

1,500만 원으로 5,423점이 해당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본 자영업자 수(목욕탕, 식당 등)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괄 감면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 간 충돌 예방을 위해 현수막(육교 2개소, 읍면동 11개소)을 게시했고, 전단지 8,000매를 제작해 홍보했다.

중마동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잘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고, 광양읍 자영업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에서 도움을 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감면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위해 4월 5~16일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요금 감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35%가 전단지, 27%가 인터넷 및 신문, 23%가 현수막을 통해 감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86%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시는 다자녀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자녀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월 사용량의 3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7월부터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가정용 상수도요금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 최저요금인 1톤당 750원으로 균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 누수가 발생한 경우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최대 2개월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겪음 수용가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15톤은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용을 적용해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돗물 공급에 있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이 깨끗해야 한다"며, "노후 관망 정비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석/기자

전남교육청, STEAM교육으로 미래 융합인재 양성

선도학교 · 교사연구회 운영 STEAM 교육 활성화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4차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을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나주 교육센터에서 STEAM 선도학교·교사연구회 관계자 연찬회를 갖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과학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뼈대를 만들고 공학과 기술, 인문·예술을 접목 실생활과 연계되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STEAM 선도학교 22교와 STEAM 교사연구회 12개를 운영하며, 우수 STEAM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역별 STEAM 교육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연찬회는 STEAM 선도학교와 STEAM 교사연구회 대표 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1세기 AI정보화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 간 융합교육에 대한 마인

드 변화 및 2021학년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강에 나선 사순문 전남도의회은 연찬회 시작 전, 전라남도청의 융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후, 연찬회 장소로 자리를 옮겨 4차산업혁명 시대 전남 학교의 새로운 추진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례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선대 박원주 교수는 '융합교육의 이해와 실천'이란 특강을 통해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흐름,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도학교와 교사연구회 대표자들이 지역과 함께하는 STEAM 교육의 운영 및 학생지도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정착 및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은 "미래 사회에 대응한 핵심 역량을 갖춘 전남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광주광역시, 국산 AI반도체 개발 앞장선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하는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재)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 선정된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반도체 실증지원사업'에서 NHN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지역 가전산업의 스마트가전 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국비 45억, 지방비 10억, 민자 22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특히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반도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도권 펌리스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가전용 AI반도체를 개발하고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한다.

크 등 전문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인공지능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스마트가전,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 국산 AI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거점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비 22억원을 지원 받아 2년간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반도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 지원을 수행한다.

AI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다수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은 확보하고 있지만,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NHN 컨소시엄은 광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인 NHN(주)를 주관으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출시한 SK텔레콤(주),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AICA) 등 전문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광주시는 NHN 컨소시엄과 함께 AI반도체 기반 서버 구축 및 응용 서



비스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고 광주에 구축예정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국산 AI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국산 AI반도체 활용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공장은 "광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김영록 지사, 여수고흥 코로나 대응 현장 살펴

도, 찾아가는 선별검사 버스 투입 등 지역감염 확산 차단 총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고흥도양읍민회관과 여수 사랑재활요양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방문은 지난 2일 이후 지역감염이 지속되는데다 8일 하루 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집단 확산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5월 들어 고흥에선 42명, 여수에선 46명이 각각 확진됐다.

김 지사는 휴일도 없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집중자는 반드시 선 격리 후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재활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별 맞춤형 간병대책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9일부터 고흥군과 여수시에 감염병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다시 급파해, 상황 안정 시까지 상주하며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이날부터 도양읍민회관과 사랑재활요양병원에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 버스를 배치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고흥군에 2천여부, 여수시에 3천여부를 지원해 누구든지 손쉽게 자가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신속 대처하고 있다.

여수시는 4일부터, 고흥군은 3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형단문주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해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촉자 1만 4천 627명의 진단검사를 했다. 그 결과 총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영만/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5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서...“청렴한 조직문화 형성하자”고 당부

국가예산 확보 총력·코로나 19 만성화 경계‘강조’

이환주 남원시장이 10일 열린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에서 현안업무 보고 받으면서, 간부들에게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 청렴한 남원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에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을 진행했는데 청렴인식 수준이 저조하고 청렴시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내부반성과 논의과정을 통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 것은 특정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팽배해있다. 그런 만큼 같이 함께 노력해서 상하 간에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장기간 공직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즉시 수용되기 어렵다”며

“그런 만큼 간부공무원의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추진 등을 적극 개선하고, 특히 ‘滅私奉公(멸사봉공)’ 내 개인보다는 공직을 살린다는 자세와 함께 제도마련과 실천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정부 각 부처 방문한 결과를 부서장들과 공유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예산단계에서부터 균등전환 사업 등에 대한 실득논리를 펼쳐 줄 것과 끊임없는 소통 채널 확보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 지역에서 코로나 19 유행업소 n차 감염이 잇따르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만성화도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되면서 만성화로 방역에 대한 수칙이



헤이해진 부분이 많다. 더 이상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통방역은 물론 백신접종률도 더욱 높여 방역태세를 더욱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이날에 열린 제 91회 춘향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청소년이 제안하는 ‘다이로움 익산정책’ 눈길

14일까지 14세~19세 이하 총 50명 모집·선정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多)이로움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곳!

모집개요

- 활동기간 : 2021년 05월 ~10월
- 활동장소 : 참가자 선정 후 추후 공지
- 모집대상
 - 익산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익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 *참가 시 분야에 따라 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5.14(금)까지 QR코드 접속 온라인 폼 이용한 참가 신청
 - *신청 후 확인 연락 발송

참가자 혜택

- 익산시장 명의 위원증 발급
- 수료증 발급(활동 80% 이상 이수시)
- 분야별 전문위원 및 토론촉진자 연결
- 정책 선정팀 상장 수여 및 2022년 익산시청소년의회 선발전 가산점 부여
- 정책연구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청소년 참가자 봉사활동 시간 인정

문의전화 / 063-859-5393(익산시 여성청소년과) 063-838-1700(익산시청소년수련관)

주최: 여성가족부, KYMA, 익산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익산시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과 아이디어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다이로움 익산 정책’을 발굴·추진한다.

시는 팀별로 정책 제안과 토론 등을 시행하는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이로움’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일 여성가족부 주체·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지자체 청소년참여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50명이 선정된다. 신청은 익산시와 익산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된 청소년 50명은 관심 분야별 7개 팀으로 나누고 팀별로 쉽고 재밌는 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시의원 등과 함께 팀을 이뤄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이디어 실현회의를 통해 시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팀별 정책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정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과 팀별로 정책발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만의 특화된 청소년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과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 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순창군, ‘전북 1000리길 스탬프투어’로 선물도 받고

멋진 풍경 감상과 함께 상품은 덤!!

순창군이 전북 1000리길 코스인 ‘강천산길’, ‘장군목길’, ‘선비의 길’ 3코스를 완주하면 인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를 시행한다.

전북 1000리길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걷기 좋은 길들 중에서도 명품길만을 골라 총 44개를 선정했으며, 이중 순창에는 ‘강천산길’, ‘장군목길’, ‘선비의길’ 등 3개의 길이 있다. 순창군은 전북 1000리길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들기 위해 쉼터 및 안내판 설치, 스탬프투어 우체통 설치 등 환경정비를 마치고 대도시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강천산길’은 강천산군립공원 입구부터 병풍폭포, 강천사, 구장군폭포로 갔다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선비의길’은 훈몽재를 시작해 김병로생가, 낙덕정까지 6km다.

특히 순창의 천리길 중 ‘장군목길’은 구미교부터 마실숙박단지, 요강바위를 거쳐 다시 구미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9km며, 섬진강을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국의 라이더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최근 용평산 중턱에 하늘길을 조성해 섬진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석양이 지는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싶은 관광객은 각 코스 인증지점에 설치된 우체통에서 스탬프투어 수첩에 코스별 도장을 날인해 순창군 환경수도과에서 제출하면 인증서와 함께 완주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수첩은 우체통에 보관되어 있어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다.

올 6월부터는 수첩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스탬프투어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북 천리길’ 어플을 설치해 천리길 안내판에 있는 NFC태그를 찍어 온라인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4개 코스를 완주할 경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통합인증서 및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전북 1000리길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완주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

김승일/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5월10일 ~ 5월31일 주민 공람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최적(안) 마련

대전 유성구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작년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 6.)”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관(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 시설을 촉진구역 별로 반영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

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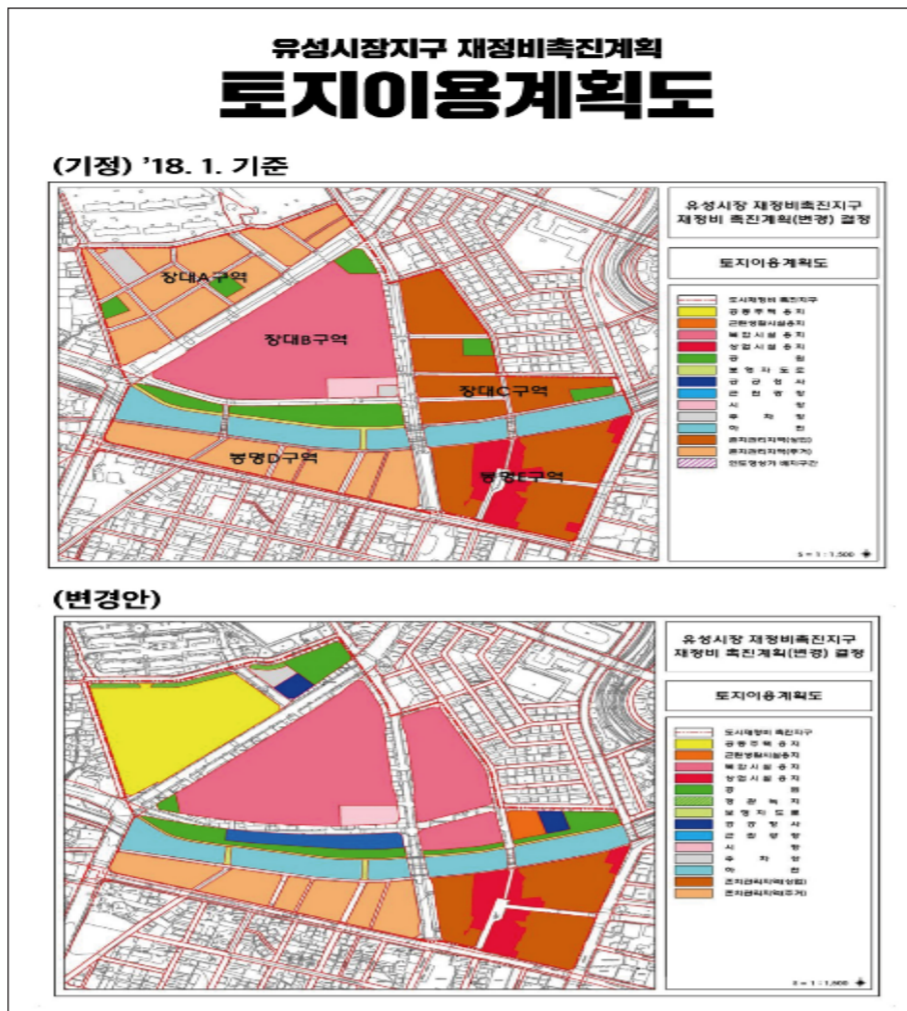
한편, 구는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성시장 보존과 5일장 활성화 원칙 하에 상생개발을 유도하며 주변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8월 경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장육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성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양양 산채’, 전국에서 인기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아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내 37농가 약 5.2톤 유통



양양군 ‘청정 산채’가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1억1천8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양양군 산채연구회(회장 노명호, 37농가)는 지난달 5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4월29일까지 가락동 도매시장에 엽두름 등 산채 7종 5,149kg를 출하했다.

양양산채는 타 시군에 산채에 비해 고가(엽두름 최고가 28,500원/kg)에 판매되며 1억1천8백만 원의 고소득을 창출했다. 이는 전년 3천만 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매출액이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는 “양양산채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청정산채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양양군과의 지속적인 거래로 향후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소싱몰인 양양몰(yangyangmall)에서도 18농가에서 1,854kg를 출하하여 3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양양군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설악산 그린푸드는 장아찌 가공용으로 산채를 1.3톤(매입액 1천7백만 원)을 산채연구회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비교적 노동력과 생산비가 적게 들고 영농생산기간이 짧은 산채작목을 관내 농가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재배면적 확대와 더불어 유통대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주요 민간투자유치 사업 돌파구 모색”

“적극행정 통해 현안사업 마무리에 시정역량 집중해야”

김정섭 공주시장이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과 장기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중간업무보고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왔던 과제나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지 않으면 장기 미제 과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특히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현안사업으로 삼아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특히,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상복합개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문화재심의 등 민간투자 사업 3건을 지목하고 전문적 역량과 창의적 분석을 더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도시의 개발과 문화재 보존 사이에는 적절한 타협과 균형이 필요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



하게 보존하면서 역사도시에 걸맞은 개발 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비롯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 등은 면책하는 안전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배상 책임

을 시에서 일부 보상해 주는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의 배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중장기과제와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펼쳐

서천군은 오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자기혈관 숫자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5월은 혈압측정의 달, 레드서클 존’을 운영한다.

레드서클 존은 혈압·혈당 수치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건강부스를 말한다.

세계 고혈압의 날은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이며 3명 중 1명은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개인적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는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군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인 30~40대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국립생태원, 경찰서, 파출소, 신서천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하고 레드서클 존 운



영을 통해 기초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레드서클 존을 통해 △의사와 1대1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한 건강 목표 설정 및 행태개선 유도 △자기혈관나이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교육 △자기혈관숫자알기 인지를 위한 건강관리 수첩, 홍보물, 리플릿 등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젊은 환자의 경우 고혈압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쉬운데 고혈압이 오래되면 심뇌혈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태안소방서, 날아다니는 불덩어리 ‘풍등’화재 주의당

태안소방서는 풍등을 이용한 행사 등으로 인근 산림 등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풍등 화재를 주의 당부했다.

풍등 날리기는 대나무와 한지로 제작된 등에 소원을 적고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는 것으로 불씨가 남은 풍등이 인근 비닐하우스, 산, 주택 등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풍등날리기 행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가형 풍등보다는 LED풍등 등 안전한 풍등 사용 ▲전기가 통하는 재질(철사 등)이 포함된 풍등 사용 금지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에 풍등 수거통 배치 ▲행사장 주변에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행사장의 위치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개성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화재 안전조치 없이 풍등을 날리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8월 태안군 남면 신온리 마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풍등이 나무 위

에 걸려서 불이 날 것 같다는 신고사항을 받고 출동한 바 있다.

박찬두 현장대응단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풍등 사용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계룡시, 지역 현안 사업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계룡시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관련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6일 류재승 부시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크게 지역현안수요와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되며, 시는 이번 방문에서 상반기 지역현안사업 3건 65억 원 및 재난안전사업 1건 7억 원 등 총 72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가칭) 계룡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50억 원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5



억 원 등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65억 원과 ▲계룡CC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류재승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 불편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를 지속 방문해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병역체력관 6억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3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7억 원 등 총 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김원호기자

금산고, 최영민 장학생의 날 운영

졸업생 최영민씨, 모교에 장학금 7년간 총 1억 800만원 쾌척



금산고등학교는 금산고등학교 37회 졸업생 최영민씨가 모교에 장학금 1,800만원을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최영민 장학금은 2015년부터 기탁하여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어 총 1억 800만원을 기탁한 것이다. 재학 당시 장학금 수혜에 대한 도움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기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으로 학년별 3명씩 9명을 선발하여 200만원씩 지급된다. 금산고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 날을 '최영민 장학생의 날'로 정하고, 충남교육감 감사패 전달, 장학금 학교 기탁, 장학금 학생 수여, 최영민씨 특

강, 졸업한 장학생 특강 등 장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최영민씨는 "모교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익수 교장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졸업생이자 벤처기업 클레버로직 대표인 최영민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학생들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명 한 명 아이가 빛날 수 있도록 명품 교육을 펼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원호기자

최홍묵 계룡시장, '대한적십자사 명예지부 회장'으로 위촉

최홍묵 계룡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부터 계룡시 명예지부 회장으로 위촉받았다. 이날 명예지부 회장 위촉장 수여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추진 사업에 대해 계룡시에서 적극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실시됐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명예회장 위촉식과 더불어 계룡시에 마스크 8000개를 전달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힘을 보탰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1년 2월 마스크 5000장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 세트, 어르신 보행보조차, 구호물품 등 물품과 마스크 착용 캠페인, 연탄배달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와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몰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돕기 위해 사회재난 성금 1천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계룡시민 김종서 님(신신태양철물상사 대표)에 대한 표창 전수식도 진행됐다.

김원호기자



연천군 연천읍, 새마을 부녀회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시

연천군 연천읍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7일 관내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연천읍 상2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집수리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지 못하였다가 새마을 부녀회 덕분에 집수리사업을 하게 되었다. 집수리 사업을 통해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였고 방충망을 설치하여 혹서기 대비도 하게 되었으며 어르신은 "어버이날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감동이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연천읍 새마을 부녀회 이옥순 회장은 "어르신이 좋아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관섭 연천읍장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재)담양장학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줄이어

인원산업(주), 성산산업(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각 500만 원 전달



(재)담양장학회는 지난 7일 인원산업(주)와 성산산업(유)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인원산업(주)은 봉산면 소재지에서 건설폐기물, 골재생산 및 석면 해체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지금까지 총 4,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성산산업(유)은 대전면 일원에서

인조 화강석 블록, 잔디 블록 등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9년부터 총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두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후배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김현수 단국대 교수 위촉

용인시는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LH공생도시포럼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임 김 센터장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한다.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신갈 오거리와 중앙동 지역에는 별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민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수기자



부천시, (주)엑손알앤디 손세정제 2,304개 기부

부천시는 (주)엑손알앤디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일 손세정제 2,304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세정제는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0개소로 배분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주)엑손알앤디는 2010년 설립해 천연허브 성분을 활용한 헤어케어, 스킨케어, 두피케어, 바디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신동학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손세정제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엑손알앤디는 주어진 위치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해주신 (주)엑손알앤디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세정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함안군,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 유공자 도지사 표창 전수

함안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묘효친 사상 확산에 기여한 효행 유공자 2명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함안군노인회지회 소속 김경미 씨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위의 귀감이 됐다. 또한, 산인면 김삼연 씨는 고려동 유적지 관리를 통해 전통 가치를 보

존하고 이웃어른 공경을 통해 효 사상을 전파하는데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함안군에서 두 분이나 효행상을 수상하시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효행 실천을 통해 지역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귀감으로 함안군이 더욱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주광춘 작가 '초대장' 선정

5월 7일 수상작가 10인 시상,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수상작품은 전시 중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주관한 「2020 코리아가든쇼」 작품전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7일에는 시상식에서는 주광춘 작가를 비롯한 10인 작가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2020 코리아가든쇼」에서는 주광춘 작가의 정원작품 '초대장-Invitation of Garden'이 대상을 받았고, '정원의 속도'를 주제로 한 황신에 작가가 최고작가상(산림청장상)에, '정원의 속도'를 주제로 한 황신에 작가가 최고작가상(산림청장상)에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주광춘 작가=초대장-Invitation to Nature ▲최고작가상(산림청장상): 황신에 작가=정원의 속도 ▲2020년의 작가상(전라남도지사상): 강희원 작가=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위한 정원 ▲순천이 주목한 작가상(순천시상): 권아림 작가=유리투정원, 이현승 작가=자경; 자연을 얻는 방법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상(국립수목원장상): 심준보 작가=cloud room, 임우성 작가=이누이트의 새로운 겨울, 정성희 작가=일상풍경, 정홍가 작가=Ring, 최윤정 작가=리틀프리스트 <이상 10명>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주최해 온 코리아가든쇼는 우수 정원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원작가 발굴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행사다.

역대 코리아가든쇼에서는 권혁문 작가(2014), 강연주 작가(2015), 윤지동 작가(2016), 최재혁 작가(2017) 등이 대상을 받았고 정원디자이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인호 신구대 교수(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식물 배치가 자연스럽게 정원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에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며 "마지막까지 경쟁한 두 작품 중에서 「초대장-Invitation to Nature」이 더 완성도 높은 연출이 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우수한 작가들이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원문화 활성화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많은 국민들에게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 예정이던 '2020 코리아가든쇼'는 코로나19 상



시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정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K-가든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가 오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 예정이던 '2020 코리아가든쇼'는 코로나19 상

황으로 연기돼 지난날 출품정원 조성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 행사가 시작되었다.

2020 코리아가든쇼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 정원'이었으며, 순천만국가정원 생태체험교육관 부지에 10개의 작품이 30일까지 전시된다.

전순희/기자

국립생태원, 제6회 생태문학공모전 개최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

2021. 05.10.(월) ~ 07.30.(금)

공모주제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동시, 시, 산문 등 생태와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과 소중함을 표현 기쁨, 슬픔, 희망, 도전의 내용
- 산문: 생태와 환경 보전,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과 소중함을 표현하는 내용
- 동화: 생태와 환경 보전,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과 소중함을 표현하는 내용

공모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국민(우리 국민, 외국인, 외국인은 제외)

접수기간
2021.05.10(월) ~ 2021.07.30(금)

시상내역
총 상금 1,000만원, 수상자 9명

구분	대상	1등	2등	3등	장려상
작품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상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장려금	2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제출형식
작품 수: 1편당 1회
문장: 200자 범위 내로 400자 이내
문장: 100자 이내로 200자 이내
(문장: 100자 이내로 200자 이내, 문장: 100자 이내로 200자 이내)
문장: 100자 이내로 200자 이내
카카오톡: @ecology, @ecology

문의사항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5500-1111
(평: 09:00~18:00, 주: 09:00~18:00, 공휴일 휴무)
E-mail: ecology@ecology.go.kr

한국전통문화대,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 초대전 개최

왕실문화의 현대적 해석... 5.12.~6.6. 전주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초대로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전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1월 서울 전시(무목적갤러리, 서촌 소재)를 개최한 이후 이번에는 전주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15)에서 열리며, 「왕의 휴식」, 「왕의 의복」, 「왕의 공간」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는 재학생, 졸업생과 함께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던 조선 왕실의 문화를 재해석하여 일상에서 쓰임이 있는 40여 점의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과 창작열로 빛어낸 조선 왕실의 아름다움을 잠시나

마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1부 「왕의 휴식: 을야지람」은 임금의 밤에 잠들기 전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던 시간으로 왕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한다. 이를 사용이 편리한 호롱, 1인용 다기 등 현대인의 을야지람에 필요할 물건으로 제안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삶에 담긴 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부 「왕의 의복: 의금상경」은 화려한 비단 위에 얇은 흙을 덧입어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군자로서 왕이 지녀야 할 자세를 의미한다. 비단과 면 소재의 겹침을 통해 화려한 듯하나 소박하게 구현된 향낭 모양의 손가방, 쓰개 모양의 모자는 의금상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

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작품 중 일부는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제작 되었으며 전시 기간 한정 사전주문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누리집과 전화(전통문화상품개발실 ☎ 041-830-7935, 전주공예품전시관 ☎ 063-282-8886)로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손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교내 부속기관으로 전통문화를 전공한 학생들의 문화유산 활용과 창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유주/기자



경상남도, 전유성·이홍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 힘 보태

행사계의 두 거장,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위해 아낌없는 조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4일 개그·코미디언계 거장 전유성과 이홍렬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힘을 보태기 위해 조직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유성은 대한민국 1호 개그맨으로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첫 대중화하였고, 개그콘서트를 최초 기획해서 공개코미디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금은 후배 개그맨 양성에 힘쓰고 있다. '뽕코'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홍렬 역시 연극무대와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적이고 익살맞은 외모, 특유의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국민 코미디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지리산 천왕봉 이색연주회를 기획하는 등 합양과 인연을 맺고 있는 전유성과 동료이자 후배 이홍렬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엑스포조직위를 전격 방문하게 되었다.



전유성과 이홍렬은 현재 계획 중인 엑스포 행사와 이벤트, 공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운라

인을 활용한 독특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며 조직위와의 알찬 만남의 시

최광용/기자

세종시문화재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참견 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7일부터 참가자 접수, 만 50~64세 대상 45명 선발

세종시문화재단은 신중년 세대를 위한 '2021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신중년 세대(만 50~64세)가 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생의 전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며, 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4년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단은 신중년들의 특성인 '주변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청춘참견학교'로 기획하였으며, 음악·연극·사진 등 총 3개의 장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음악분야는 황혼음악을 담당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고, 연극분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과 낭독극으로 만들어 보면서 동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사진분야는 참여자들이 카메라를 매개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찾도록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 심사를 통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문화예술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2021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참견학교

나의 나의 인생에 예술, 말을 걸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참가자 접수, 만 50~64세 대상 45명 선발

5.17. - 5.31.

6.22. - 9.28.

세종시문화재단

최재은/기자

경기도주식회사 '공정무역제품개발' 지원...21일까지 참여사 모집

경기도주식회사, 2021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 공동체 발전과 윤리적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 개발에 앞장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은 공정무역 원료와 지역 생산품을 결합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원료가 경기도 생산물 또는 공정무역 생산물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식품과 비식품 분야에서 각각 1개 제품을 선정하며,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기여도가 있는 제품

은 선발 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기획, 출시, 판로지원 등 전 부문을 경기도 및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발한 공정무역 제품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공정무역 브랜드 'Fair TradeGGD' 마크를 부착해 출시하며, 경기도주식회사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제품 판매 촉진뿐 아니라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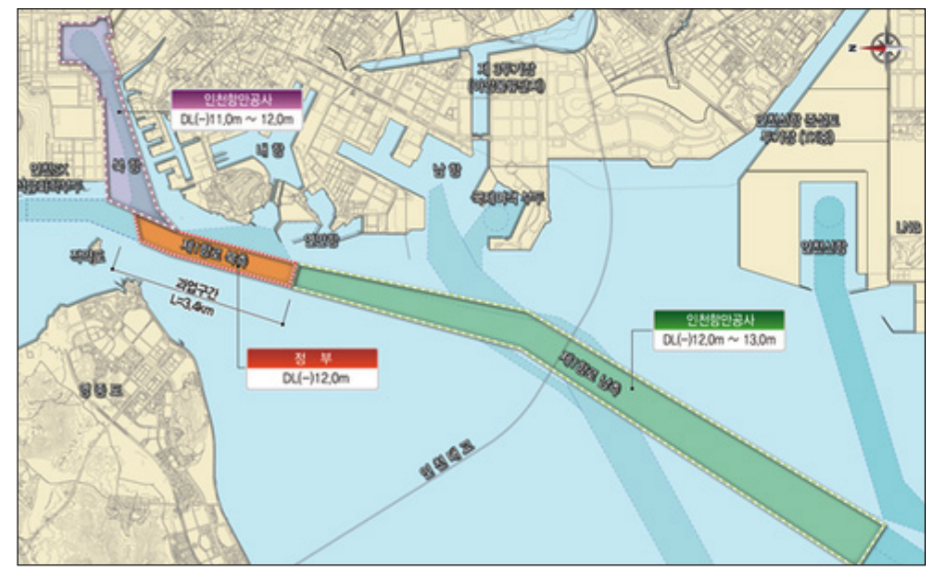
한편, 경기도는 2018년 파주 장단공과 베트남 공정무역 캐슈너트로 '캐슈두유'를 선보인 바 있다. 여

주 쌀과 이천 고구마, 파주 장단콩 그리고 베트남 공정무역 카카오를 결합한 '더 귀한 초콜릿 3종'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근수기자

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제1항로 북측 준설사업 착공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 시동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높이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할 수 있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제1항로 전반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지난해 말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제1항로 남측구간과 북항은 인천항만공사(2020년 12월 착공)가 착공하였고, 이번에 제1항로 북측구간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에 착공하게 되었다.

이번 준설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인천내항 전면~인천북항 입구) 3.4km를 수심 DL(-)12.0m(현재수심 DL(-)8.2m)까지 준설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 7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에 준설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과 지난해 말 인천항만공사가 조성사업 시작한 남측구간 및 북항의 준설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항로에서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3만 톤급 이상 선박의 입항대기 시간이 연간 1,460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복숭아 토종효모로 만든 와인소주 미국 수출

기술이전 업체 (주)갯바위 복숭아 포트와인 등 4종, 20톤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로 수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일 복숭아에서 분리한 토종효모로 발효한 복숭아포트와인 등 4종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2017년 저온 발효 가능한 복숭아 유래 순수 토종 효모를 개발하고 2018년 농업회사법인 (주)갯바위에 기술이전했다.

다음해인 2019년 청도복숭아효모를 이용한 주류 개발 업무협약을 실시한 결과, 올해 복숭아 포트와인을 생산해 수출하게 됐다.

이번에 수출하는 복숭아 포트와인은 알코올 함량 16%(375ml)의 와인 소주로 총 20톤, 5,000만원 상당이며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 지역으로 수출된다.

(주)갯바위 이현준 대표는 30년 양조업에 종사한 전통 발효연구가로 청도복숭아효모 및 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2018년부터 복숭아, 자두 등

와인소주 4종을 꾸준히 생산, 수출하여 172톤(459,000달러)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출량은 (2018년) 47톤 → (2019) 71톤 → (2020) 54톤 → (2021) 94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지역도 미국, 호주뿐 아니라 향후 몽골,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토종효모를 이용해 포트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품주를 만들어 수출할 계획이다.

신용승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복숭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불안정 및 복숭아 부가가치 향상과 발효식품 대부분 수입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작한 가공품 및 토종효모 개발 연구가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수출확대와 토종효모 개



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외화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개발한 복숭아 효모는 국내 최초로 순수 분리된 토종 효모로서 대한민국 미

생물 자원균주로 등록된 저온내성효모이다. 이 효모는 비교적 저온(10~20℃)에서도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발효 공정으로 생산되는 맥주나 전통주 제조에 적합한다.

김세기기자

광주광역시 복구, 청년·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에 12억 5천만 원 투입

고용노동부 2개 공모서 총 12억 5천만 원 확보



광주광역시 복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공모에서 총 1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복구가 선정됐다.

복구는 오는 12월까지 총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절청년을 발굴, 심리상담과 금융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확보한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수행기관과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술 기반 재택 상담사 및 아동돌봄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김덕윤기자

'2022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국비 160억 원 확보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 바이오화학소재 등 2개 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 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국비 100억 원, 지방비 43억 원)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국비 60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



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

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기자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125억원 규모) 민간 운용사 모집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

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2021.6월 예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되었다. 제1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항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2021년 6월

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효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티키타카' 허재X허웅X허훈, 예능 삼부자 등극! 훈훈 외모+능청 입담까지

SBS '티키타카' 허재-허웅-허훈 '허삼부자'가 예능 삼부자로 등극했다.

9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된 SBS 예능 '티키타카'(이하 '티키타카')에는 허재-허웅-허훈 '허삼부자'와 김진수-장현성-장항준 '김장장' 트리오가 출격, 빅웃음 뮤직 토크를 펼쳤다.

먼저 '농구대통령' 허재의 피플이 어받아 코트 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허웅-허훈 형제는 아버지의 예능DNA까지 똑 닮은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허웅-허훈 형제의 훗날의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허웅은 "저는 외모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스타일"이라고, 허훈은 "제 장점은 꽃사슴 같은 눈"이라고 능청을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허웅은 팬들 사이에서 '농구계 천정명'이라고 불린다.

두 아들의 외모 부심에 허재는 "소녀팬은 내가 원조다. 독보적 원톱이었다"라고 인기 셀프 자랑에 나섰다. 허재는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자유로운 리듬과 창법으로 구사해 모두를 땀 터지게 했다. 아버지 허재의 자유분방한 노래 실력에 허웅은 "나 이런 노래 처음 듣는다"라고, 허훈은 "마이웨이로 부른다. 편곡을 해버리네"라고 센스 만점 감상평을 전해 큰 웃음을 안겼다.

허웅-허훈 형제의 코트 위 신경전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형 허웅은 "훈이와 경기하는 날이면 감독님이 제가 훈이를 맡게끔 작전을 변경하신다"라고, 허훈은 "시련 일주일 전부터 형과 신경전에 돌입한다"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두 아들의 피 튀기는 경쟁에 허재는 "둘이 형제가 아닌 것처럼 죽기 살기로 불타라"라고 전했다.

허재의 남다른 예능 사랑도 공개됐다. 최근 방송계에는 허재가 예능 출연을 위해 감독직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이에 허재는 "예능을 하며 짝이는 것 같고 정말 좋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허웅-허훈 형

제 역시 "아버지가 예능을 시작하고 훨씬 젊어졌다"며 "아버지가 계속 연예계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특히 허웅-허훈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예능을 보시면서 말을 조리 있게 해라, 서장훈 반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폭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허웅-허훈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서열이 아래다"라고 전해 허재를 당황하게 했다. 이에 허재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아내를 향한 깜짝 손하트까지 선사해 MC들을 땀 터지게 만들었다. 이어 허재의 아내가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앞으로 이사하고, 전지훈런까지 함께 내려가 지냈던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에대 89학번 동기 김진수, 장현성, 장항준도 32년 지기다로 입담 티키타카를 과시했다. 이들 세 사람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채널의 제작자이기도 한 김진수는 "유튜브 수익금으로 세 사람 명의로 된 11층 건물을 짓는 게 목표"라는 야심 폭발한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람은 밥은 누가 사냐는 질문에 "항준이가 산다"라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또한 장항준은 "아내 김은희 작가와 둘이 밥 먹으면 누가 계산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내 카드로 내가 산다"라고 답해 모두를 땀 터지게 만들었다. 장항준은 "아내는 잘 되고 나서도 인간성이 전혀 안 변했다. 태도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내 자랑을 이어갔다. 김진수의 아내 자랑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진수의 아내는 신승훈의 'I Believe' 200곡을 작사한 양재선 작사가다. 이날 김진수는 'I Believe'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열창,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런가 하면 장현성과 장항준은 노후 계획의 일환으로 서로를 사돈으로



내정했다고 털어놓았다. 장현성의 아들은 훈훈한 외모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업 성적까지 거두고 있다고, 장항준은 "우리 딸은 아내 김은희를 닮아 성품이 참 좋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아침에 깨워본 적이 없다. 알아서 혼자 잘한다"라고 폭풍 딸 자랑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서로에게 서운한 점은 없냐는 물음에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건강 하나"라고 답해 모두를 톨콜하게 만들었다. 특히 장현성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

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라는 말로 세월과 우정에 대해 돌이켜보게 했다. 김진수-장항준-장현성은 015B의 '이젠 안녕'을 부르며 32년 찢던 우정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는 성시경-백지영의 귀호강 특집 예고편이 공개돼 다음 주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고 퀄리티 뮤직과 입담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티키타카'는 달리는 차 안에서 펼쳐지는 신개념 드라이빙 뮤직 토크쇼.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실관람객들의 열렬한 찬사!

'스칼렛 필름컷' 중정 2주차 극장 이벤트로 열기 고조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재탄생한 위대한 걸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개봉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실관람객들의 극찬으로 독보적인 마스터 피스임을 입증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삶의 모든 것을 뜨겁게 사랑하던 여인 '스칼렛'과 운명처럼 그녀를 만난 '레트'가 그려내는 생애 가장 가슴 벅찬 클래식 로맨스.

한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주차 극장 이벤트를 확정 지으며 다시 한번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1주차 배지와 인물 엽서 굿즈 패키지 상영회를 모두 초고속 매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이벤트로 준

비되어 있던 A3 포스터 및 스칼렛 & 레트 필름컷도 빠른 속도로 소진된 바, 이번에는 영화 속 대체 불가 히로인 '스칼렛 오히라'의 눈부신 순간들을 담은 스칼렛 필름컷이 공개돼 관심을 더한다.

또 한 번 관객들의 소장 욕구를 무한 자극하는 이 이벤트는 롯데시네마 웰드타워, 센텀시티, 그리고 대한극장과 씨네큐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개별 극장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영원히 기억 속에 각인될 클래식 로맨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최재은/기자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명품 배우들 총 출동

연기와 배우 장광과 최원영이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더불어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가 캐스팅돼 믿고 보는 신스틸러 라인업이 완성됐다.

명품 배우들이 청춘 라인업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 등 명품 연기 군단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먼저 장광은 현재 최고의 권력가 연조문 역으로 분해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연조문은 30년 전 지금의 입금을 직접 용상에 앉힌 공신으로, 입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신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키워온 이시훈(최원영 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매 작품 완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는 최원영은 속을 알 수 없는 야심가 도승지 이시훈 역으로 분할 예정이다. 이시훈은 노비로 태어나 입금의 총애를 받는 도승지까지 오른 능력자로 조카인 이표는 물론 남영(유승호 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극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팔색조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박아인은 한양 최고의 기방 기녀 운심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전망이다.



운심은 눈빛으로 사람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밀주업자 심현(문유강 분)과는 애증으로 얽힌 묘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최대 밀주조직을 운영하는 밀주업자 심현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문유강이 캐스팅되었다.

심현은 금주령 시대 그의 허락 없이는 술을 빚어도 팔아도 안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술을 빚는 강로서(이혜리 분)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원희는 황가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황가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헌부 소유로 신입 감찰 남영과 싸움 이루

는 인물이다. 임원희가 유승호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의 합류로 극의 재미와 무게감을 더할 명품 연기 군단이 완성됐다."

신스틸러 역할을 담당할 연기와 배우 5인은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 청춘 4인방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시청자들에게 현장의 활기 차고 밝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영화 '기적', 박정민 캐릭터 변신 계보 공개

박정민, 이성민, 임윤아, 이수경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기적'의 박정민이 한계 없는 캐릭터 변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차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박정민)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병헌, 윤여정과 찰떡 가족 호흡을 자랑하며 2018년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 역을 남다른 노력으로 완성하며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받은 박정민. 이어 '사바하'에서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나한' 역으로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하고, '시동'에서는 집 떠난 반항아 '택일' 역으로 파란만장한 청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살인 청부업자의 마지막 미션을 돕는 조력자이자 성소수자 '유이' 역으로 분한 박정민은 제41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 명실상부 총무로 대체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장르 불문 매 작품 특유의 개성으로 캐릭터를 소화한 박정민이 '기적'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박정민은 남다른 두뇌를 가졌지만 수학 말고는 모든 게 허술한 4차원 수학 천재 '준경' 역을 특유의 재치 있는 연기로 완벽 소화, 친근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경복 봉화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더한 박정민은 한층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해 기대를 모은다.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 중에 감정의 폭이 가장 큰 캐릭터라 인물의 감정선



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기적'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변신을 예고한 박정민은 한층 깊어진 연기와 디테일한 표현력으로도 한번 스크린을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연출한 이장훈 감독의 신작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유쾌한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기적'은 6월 개봉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마인' 조혜원, 김서형의 숨겨진 과거 모습 첫 등장...관심 집중

'마인' 조혜원이 김서형의 과거 모습을 연기하며 독보적인 매력을 뽐냈다. 첫 방송부터 스펙터클한 전개와 감각적인 영상미,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tvN 새 토일드라마 '마인(Mine)'(연출 이나정, 극본 백미경,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제이에스픽처스)은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조혜원은 비밀 속에 감추어진 김서형의 과거 모습을 연기하며 첫 등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일 방송된 '마인(Mine)' 2회에서는 엠마 수녀(예수정 분)를 찾아가던 정서현(김서형 분)이 최면에 걸리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엠마 수녀는 서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어보라고 권유했다. 망설이던 서

현은 결국 옷장을 열었고 그 속에 아프면서도 그리운 과거 시절이 담겨 있었다. 옷장 속 걸려있던 물감 묻은 서초는 어느새 화장한 날 손을 잡고 뛰어가는 두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밝은 웃음을 지으며 긴 머리의 다른 여자 손을 잡고 뛰어가던 젊은 서현(조혜원 분)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이윽고 나무에 기댄 채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빛에선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흘러들고 손가락질 긴 채 상대를 바라 보던 서현은 이윽고 이마에 키스를 해 서현의 숨겨둔 비밀을 드러냈다. 첫 등장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조혜원은 독보적인 개성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짧은 등장이지만 강렬한 아우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꼭 붙든 조혜원은 카리스마 짙은 현재의 정

서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깊은 여운을 선사했다. 특히 배우 김서형과 닮은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밝고 사랑스러운 청춘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 더욱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미 광고계에선 2021년 상반기에만 5편의 광고를 찍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조혜원은 드라마 OCN '트랩'의 형사와 KBS2 '피플'의 절없는 모델지망생, tvN '낮과 밤'의 프로페셔널한 정보원 그리고 '마인'의 젊은 서현까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며 주목할 만한 신인 연기자로서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누리꾼들 또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앞으로 펼칠 조혜원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마인(Mine)'은 토, 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